

김광현, 新포스팅시스템
선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광현(31)은 새로운 포스팅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류현진(32), 박병호(33) 때와는 다르다.

김광현은 최근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속 팀 SK 와이번스는 아직 김광현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SK와 계약이 남아 있는 김광현은 SK의 허락 없이는 메이저리그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SK가 받을 수 있는 이적료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바뀐 '한미 선수계약협정'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응찰료(포스팅 금액)를 적어 낸 구단이 해당 선수와 독점 협상권을 가졌다. 그러나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선수가 자유롭게 30개 구단과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달라진 점은 또 있다. 이전까지는 포스팅 금액을 모두 원 소속구단이 이적료로 가져갔다. 자연스럽게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적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에서는 계약 규모에 따라 이적료가 책정되며, 그 비중이 낮지 않다.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적료는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옵션을 통해 선수가 더 많은 액수를 챙길 수도 있다.

과거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LA 다저스)과 박병호(마네스타 트윈스)는 각각 2573만 7737달러 33센트, 1285만달러를 원 소속구단 한화와 넥센(현 키움)에 안겼다. 이와 함께 류현진은 6년 총액 3600만달러, 박병호는 4+1년 총액 1800만달러에 따른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김광현의 경우 포스팅 금액이 따로 필요없다. 보장금액에 따라 이적료가 산출된다. 메이저리그 구단으로서 이적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 그만큼 선수의 몸값은 높아질 여지가 커진다.

선수에게 유리한 점은 또 있다. 이전에는 포스팅금액이 적을 경우 KBO리그의 원 소속구단에서 포스팅을 철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이같은 권리가 사라졌다. 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이다.

벤투 “대한민국 축구 전략 빌드업 가장 적절하다 생각”

“대표팀 훈련 기간 짧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11월 A매치 2연전(레바논, 브라질전)을 마친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에 빌드업 전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더 발전시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벤투는 지난 15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 레바논전에서 0-0으로 비겼고, 전날(19

일) 열린 브라질전에서 0-3으로 패하며 이번 일정은 1무1패로 마쳤다. 벤투 감독은 이번 A매치 기간 특점이 없었다는 지적에 “최대한 찬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전에서도 찬스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허려 했다”며 “경기 중 고치진(에) 고쳐야할 점을 지적하고 경기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FIFA 랭킹 3위이자 남미 챔피언 브라질전에 대해선 “브라질은

세계적인 강팀으로 압박도 빌드업도 모두 뛰어났다”면서도 “하지만 경기 중 우리도 좋은 장면이 많았다.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에 빌드업 전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더 발전시켜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수 구성 등 대표팀을 둘러싼 비판이 있다는 말에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모두 존중한다”며 “11월 두 경기만 보자면, 두 경기에서 사용한 전술이 다르고 선수 구성도 다르다. 의견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신념을 드러냈다.

이번 A매치를 통해 얻은 점에 대해 그는 “하위 대위 이번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이 발전할 수 있을지를 봤다”며 “브라질전의 경우 월드컵 예선과는 다른 성격이었고 따라서 준비도 달랐다. 국가대표팀의 경우 훈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프리미어12 결산⑥



이정후·김하성·이영하 등 ‘셋별들’ 세대교체 선두주자

김경문의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성과를 꼽으라면 2020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수확이 있다. 반짝 빛난 셋별들의 등장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끈 한국 야구 대표팀은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 역전패, 준우승에 만족했다. 1회초 김하성의 투런홈런, 김현수의 솔로홈런으로 3-0 리드를 잡고 도승리를 놓쳤다.

2015년 초대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했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슈퍼라운드 전적 3승2패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 대만(2승3패)과 호주(1승4패)를 제치고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 후 “젊은 선수들이 성장한 것은 인상적”이라며 “좋은 선수들이 보였다. 준비를 잘 해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8월에는 잘 싸울 수 있는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세대교체에도 성공한 김경문은, 국가대표 터줏대감이던 이대호, 김태균, 정우람 등을 대신해 젊은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재훈, 이영하, 문경찬, 고우석, 이승호, 박세혁, 강백호 등 7명이 성인 대표팀을 처음 경험했다.

이정후가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이정후는 8경기에서 2루타 5개를 포함해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4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이종범 LG 트윈스 코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해져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김하성도 한일전 선제 투런홈런을 터뜨리는 등 타율 0.333(27타수 9안타) 1홈런 6타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와 김하성은 외야수와 유격수 포지션에서 나란히 대회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다.

투수 중에는 이영하가 돋보였다. 소속팀에서와는 달리 중간계투로 활약한 이영하는 5경기에 등판해 1승 무패 평균자책점 1.08(8⅓이닝 1자책)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결승전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2⅓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이정후는 “아쉬운 것은 없다. 최선을 다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며 “단지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어리니까 잘 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약속했다.

김하성은 “일본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도 그렇다”며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진 기억들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욕을 다짐했다.

이영하는 “어린 나이에 처음 대표팀에 선발돼 굉장히 잘 할 것 같다”며 “또 뽑히게 되면 경험이 있으니 그때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성용 생각나던 주세종의 ‘대지가르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 자랑

19일 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펼쳐진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0-3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진 경기치고는 뒷맛이 크게 나쁘진 않았다.

이날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부임 후 내내 강조하던 ‘빌드업 축구’를 구현하려 노력했다.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축구’를 펼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 중심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주세종이 있었다.

지난 6월7일 호주, 6월11일 이란전을 끝으로 대표팀을 잠시 떠나 있다가 5개월 만에 벤투호에 승선한 주세종은 브라질전 한국 공격

의 ‘기점’이었다. 주세종은 하프라인 아래 중앙에서 오버래핑 해 올라가는 좌우폴백 또는 원포워드 황희찬과 손흥민을 겨냥한 중장거리 패스를 수차례 시도했다.

일단 그 중장거리 패스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자 먹힐 수 있던 전략인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주세종은 마치 은퇴한 기성용의 전매특허 같았던 ‘대지가르기’가 떠오를 정도의 빠르고 정확한 장거리 패스를 좌우로 뿌렸다. 라인 밖으로 나가는 패스는 아예 없었고 거의 대부분 타깃으로 삼은 선수 앞에 제대로 배달됐다.



주세종이 5개월만의 A매치 복귀전에서, 그것도 브라질이라는 강호를 상대로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서 대표팀 중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적어도 브라질전에서 보여준 주세종의 패스는, 기성용의 빈자리가 아쉽지 않게 해줬다.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